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전주광역시 완산구 완산동 344-22 완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음 11월 24일) 제19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눈이 내려 더 아름다운 진안 메타세쿼이아길



진안군 부귀면 메타세쿼이아 길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면서 겨울 낭만을 제대로 만끽 할 수 있게 됐다. 진안은 9일 내린 눈으로 10cm 정도의 강설량을 보이면서 하얀 눈으로 뒤덮인 메타세쿼이아 길이 환상적이다. 이 길은 계절마다 아름다운 매력을 뽐내며 영화·드라마 촬영지,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가장 한국적인 글로벌 도시 만들 것”

**김승수 전주시장 새해 포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  
일자리 강화·미래도시 구축  
복지 확대 등 4대 정책 발표

김승수 시장은 9일 오전 전주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4대 주요정책을 발표하며 무술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4대 주요정책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일자리 강화, 미래도시 구축, 복지정책 확대를 언급했다.

먼저 김 시장은 전통문화를 앞세우며 국제포럼, 문화축제, 역사문화 등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는 전주문화특별시의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추진, 3대 국제포럼 위상 강화(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세계무형유산포럼, 세계슬로포럼), 문화축제 경쟁력 강화

(전주비밀밭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역사문화도시(전라감영 복원 사업, 후백제 재조명 사업 등) 구축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 육성과 청년들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자리 강화 등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청년희망도시 만들기는 탄소산업과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4차 산업과 금융산업 등을 육성, 사회적기업 역량을 강화해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성장 동력 기반 확보 등 청년실업을 해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관광객 유인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이 편안히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을 위한 환경조성으로는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서화동 예술마을 재생사업, 팔복·승안 새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비장애인 등 주민 모두가 아우러질 수 있는 동네복지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내비쳤다.

복지정책 내용으로 엄마랑 아이랑 키즈 카페 조성, 장애인 맞춤형센터 설치, 지원하고 셔틀버스와 톨택시 등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 안을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재임기간 3년 반동안의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백년의 전통문화가 이어오면서 전주가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매일 INDEX**  
3면 - “바른정당은 ‘한국당 아바타’”  
12면 - 전주 관광프로그램 테마여행 선정

**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전환 지원**

전북도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09년 이전 15인승 이하(소형)의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로 신규 구입 시 대당 500만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9년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구입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학차량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3,370대 중 올해 사업물량으로 143대를 선정, 2월 중에 10개 시군(완주, 진안, 장수, 임실 제외)에서 사업공고 후 시군별 배정된 물량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社 告**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 北 “평창 고위대표단 등 파견” 南 “비핵화 대화 재개하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고위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측은 2월 설 명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한편,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의 중단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우리 측 대표단 일원으로 남북회담 대변인을 맡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전까지의 회담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장에서 고위급 회담 전체회의를 65분간 진행했다.

천 차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전체회의의 기초발언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남북공동의장과 응원단 파견을 바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 2월 설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 것과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으며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도 제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북측은 비핵화 대화 재개 요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십자 회담 및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서는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남북 간 대화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기본적 입장을 북측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전했다.

기초발언에서 북한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어 획기적인 계기로 이뤄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차관은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나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북측 대표단의 명시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謹賀新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정  
더욱더 가까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의회